

연구보고서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김태준_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tjkim@ricon.re.kr)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리스크관리 현황을 타 금융기관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를 위해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자기자본규제는 금융기관이 노출된 위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모든 금융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관련 공제조합 역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의해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제조합 감독기준과 RBC제도 가용자본의 산출 방법은 기본적인 산출구조는 유사하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구하는데 있어서 계정이나 계수, 분산효과 적용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권업계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 현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RBC제도 기반으로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여, 보험권과 비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손해 보험회사 전체의 RBC비율은 241.2%이며 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의 RBC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RBC비율은 760% 대 중반으로 나타나 손해보험 업계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RBC비율 산출결과 시사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여력은 보험업종은 물론이고 같은 건설공제조합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22년 보험업계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중요한 이슈인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이 하향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협체와의 지급여력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증기관으로서의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재평가하였으며, 대외적인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